

This file has been cleaned of potential threats.

If you confirm that the file is coming from a trusted source, you can send the following SHA-256 hash value to your admin for the original file.

edfb5c88254470d690402164ec07b654c8103885a2bc498b55a9eb82d9886202

To view the reconstructed contents, please SCROLL DOWN to next page.

- 주요 뉴스: 토요타 자동차의 9월 생산 40% 감축 예고, 글로벌 경기회복 정점 지났다는 우려
 - 미국 재무·노동부장관, 일부 주정부는 특별 실업급여 연장 지급 가능
 - 미국 상무부, 서비스 부문 추가 정보 고려 시 2/4분기 성장률의 상향 조정 예상
 - 골드만 삭스, 미국 3/4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경기 둔화 우려 가운데 일부 기대감이 지속
 주가 상승[+0.1%], 달러화 강세[+0.5%], 금리 하락[-2bp]
 - 주가: 미국 S&P500 지수는 대형 기술주와 경기방어주의 강세 등이 반영
 유로 Stoxx 600 지수는 원자재 관련주의 부진 등으로 1.5% 하락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델타 변이 우려와 테이퍼링 가능성 등으로 9개월 만에 최고 수준
 유로화 가치는 0.3% 하락, 엔화는 보합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위험자산 선호 약화 등이 배경
 독일도 미국과 동일한 이유 등으로 소폭 하락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176.6원, -0.1원) 보합, 한국 CDS 보합

		8/19일	8/18일	전일대비			8/19일	8/18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405.8	4,400.3	0.13%	국채 금리 10y	미국	1.24%	1.26%	-2bp
	유럽	467.24	474.42	-1.51%		독일	-0.49%	-0.48%	-1bp
	중국	3,465.6	3,485.3	-0.57%	CDS 5y	한국	18bp	18bp	0bp
	일본	27,281	27,586	-1.10%		중국	35bp	36bp	-1bp
	한국	3,097.8	3,158.9	-1.93%	위험 지표	EMBI+	-	364	-
환율	달러지수	93.56	93.14	0.46%		VIX	21.67	21.57	0.46%
	유로화	1.1675	1.1711	-0.31%		WTI유	63.69	65.46	-2.70%
	엔화	109.74	109.77	0.03%	원자재	구리	404.5	412.0	-1.82%
	위안화	6.4949	6.4847	-0.16%		금	1,780.4	1,787.8	-0.42%
	원화	1,176.2	1,168.0	-0.70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500, 유럽 Stoxx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토요타 자동차의 9월 생산 40% 감축 예고, 글로벌 경기회복 정점 지났다는 우려

- 토요타 자동차는 베트남, 말레이시아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차량용 반도체 부족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9월 생산량을 90만대에서 54만대로 축소한다고 발표. Ford도 다음 주 부터 픽업트럭 조립을 일부 중단할 계획
- 바이러스 재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체계 악화가 제조업 생산에 강한 타격을 미치면서, 연준 테이퍼링, 중국 경기둔화 우려, 철강·원유 등 상품가격 하락과 맞물려 경기회복이 정점을 통과했다는(the best of the recovery is behind us) 우려가 확대
- 특히 연준 테이퍼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 생산부문 충격이 가시화된 점에 주목. FT는 중앙은행이 경제적 충격 없이 통화정책을 긴축할 수 없다(cannot take away the punch bowl without taking a wrecking ball to the economy)고 지적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재무·노동부장관, 일부 주정부는 특별 실업급여 연장 지급 가능

- 엘런 장관과 월쉬 장관은 실업률이 높은 일부 지역의 경우 코로나 19 구제기금을 활용해 특별 실업급여 지급을 연장하는 방안이 의미가 있다고 언급
- 최근 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노동자의 구직 의지를 저해하는 특별 실업급여를 예정(9/6일)대로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. 현재 26개 주는 이미 연장을 중단했으며, 일부 주에서는 지급 연장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

■ 미국 7월 컨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, 전월비 상승하며 경제성장 지속을 시사

- 해당 지수는 116.0으로 전월보다 0.9% 올라 예상치(0.8%) 상회. 컨퍼런스보드의 Ataman Ozyildirim는 델타 변이와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단기적으로 경제 역풍이 될 수는 있지만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

■ 미국 상무부, 서비스 부문 추가 정보 고려 시 2/4분기 성장률의 상향 조정 예상

- 상무부의 분기별 서비스 조사(QSS)를 통해 획득한 소매매출과 재고 관련 정보를 감안하면, 2/4분기 성장률은 당초 정부의 발표(6.5%)보다 높은 7.3%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. QSS에는 서비스 지출, 지식재산권 상품 투자 등이 포함

■ 골드만 삭스, 미국 3/4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

-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영향이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크다고 평가하면서 기존 전망치(9.0%)를 하향 조정(5.5%). 다만 4/4분기의 경우 기존 예상치(5.5%)를 상향 조정한 새로운 전망치(6.5%)를 제시

■ ECB 이사, 선제적 지침 변경은 새로운 전략의 첫걸음에 불과

- 레인 이사는 해당 발언을 통해 향후 통화정책 전략 관련하여 추가적인 변화가 제기될 수 있음을 시사. 또한 새로운 통화정책 전략은 미래 정책결정의 강력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

■ 노르웨이 중앙은행, 기준금리 동결. 9월 금리인상 시사

- 올슨 총재는 코로나 19 확산 등을 고려했다고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을 설명.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제한 조치들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, 추가적인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 및 확산 등이 변수라고 언급

■ 중국 정부, 유망 산업에 집중하는 새로운 국영 종합기업 설립할 계획

- 국영자산감독관리위원회(SASAC)는 향후 해당 기업이 산업용 기계, 고성능 반도체, 신소재, 신에너지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기술혁신과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. 한편 기존 국영기업의 1~7월 순이익은 1.2조위안으로 전년동기비 2배 가량 증가

■ 인도네시아 중앙은행, 경기회복 지원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 동결

- 페리 와리지요 총재는 저금리 유지를 통한 유동성 공급 확대는 계속될 것이라고 발언. 금년 하반기 경제는 백신 접종과 경제활동 재개로 회복세 지속이 예상되지만, 미국의 테이퍼링 가능성은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8/19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8월 2주차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(만건): 34.8, 전주(37.7), 예상치(36.3)
- 미국 8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지수: 19.4, 7월(21.9), 예상치(23.0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8/20 현지시각 기준)

- 독일 7월 생산자물가, 영국 7월 소매매출, 일본 7월 소비자물가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비전통적 통화정책, 지속성의 정당화 부여는 어려운 상황 - Financial Times

(The case for continuing quantitative easing is hard to fathom)

- 중앙은행들은 QE가 GDP를 증가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지만, 백신접종이 선진국 경기 회복을 견인하고 있고 거의 모든 자산 가격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QE는 설득력이 떨어지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시적이라는 중앙은행 평가도 의문시
- BIS와 IMF는 선진국 정부부채의 단기화와 함께 전세계 비금융회사 부채가 큰 폭(19년 GDP 대비 91%) 증가했음을 지적. 누적된 부채를 생산적 투자로 연결하지 않을 경우, 부채부담이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문제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

■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 계획, 델타변이 확산 속도에 따라 수정이 요구 - WSJ

(Delta Variant May Come for the Fed's Fall Plans Too)

- 7월 FOMC 의사록에서 연준 다수 정책입안자들의 금리 인상을 위한 조기 테이퍼링 의지를 확인. 하지만 그 이후 델타변이는 급속히 확산, 중환자 수 증가와 함께 8월 소비자신뢰지수, 7월 소매판매, 8월 신용카드 데이터 등의 지표가 악화
- 아울러 매파적 성향의 연준과 코로나 19 재확산 결합은 투자자들에게 큰 부담. 이에 연준은 자산매입축소 시기 및 방법 선정 시, 델타변이 확산에 따른 경제적 파장을 고려, 유연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

■ 미국의 재정정책을 통한 성장여력 확대, 낙수효과는 경미 - 블룸버그

(Trickle-Down Economics Has Failed Its Growth Mission)

■ 미국 5년과 30년 만기 국채 스프레드, 연준 정책 전망에 대한 신뢰를 반증 - WSJ

(Bond Market Signals Confidence in Fed Policy Outlook)

■ 신흥국 주식, 미국 대비 20년 만에 가장 큰 저평가 국면 등 투자자 관심 필요 - 블룸버그

(Contrarian Investors Should Love Emerging Markets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28, E-mail ikyoon@kcif.or.kr